

전북교육정책 종합만족도 상승세

2014년 6.81점~2015년 7.60점으로... 올해 10점 만점에 7.70점

전북도교육청이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했으며 도내 초·중·고교생 4,463명, 학부모 6,246명, 교직원 3,802명 총 1만 4,511명이 응답했다. 전북교육정책 만족 점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순으로 높았으며 각 항목별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종합만족도는 7.70점이다. 2014년 6.81점, 2015년 7.60점으로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하여 전북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 안착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여건과 규모에 맞는 정책 추진의 노력으로 6개 시·지역의 만족도가 작년 대비 모두 높아졌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항목별로 학생들은 학교가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질문에 8.16점을, 학교폭력 예방 노력에도 8.13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전년도에 6.61점에 머물렀던 교사들의 학생지원활동을 지원하고 학생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항목은 7.72점으로 만족도가 크게 올라 눈길을 끌었다. 교직원들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유치원 교원)이 8.40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보충·야간자를 학습의 학생 선택권 보장을 8.15점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그러나 학교업무개선은 전년도 보다 0.39점이 하락한 7.34점으로 만족도가 하락하여 공문서 감축, 학교 업무 최적화 등 학교업무 개선 정책의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학부모들은 학생 놀이활동에 8.54점,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8.36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진로진학정보제공 및 지원 7.26점으로 만족도가 비교적 낮고 고입과 대입 진로교육에 대해 세심한 정보 제공 등 진학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교육주체들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낮은 만족도를 보인 영역은 자체 분석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3월 29일 수요일 해돋이 06:21 | 해질 18:50 | 달출 22:47 | 달짐 10:39

날씨 최저기온 2~6도 최고기온 10~14도

전주시, 드론축구공 전국 드론매장에서 판매

캠틱종합기술원, 2개 유통사 · 5개 제조사와 드론축구공 전국시판 위한 협약 체결

전주시가 지역특화산업인 첨단 탄소소재와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을 융합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드론축구공 보급에 나선다. 드론축구공이 보급되면, 새로운 레저 스포츠산업으로 각광받는 드론축구의 저변이 넓어지고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탄소소재와 첨단 드론기술, 항공기술이 결합된 전주산 드론축구공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8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양근의 캠틱종합기술원장, 장성기 신드론 대표이사, 박선기 우리항공 대표이사, 최범수 GBF 대표이사, 방순원 기원전자 대표이사 등 5개 제조사 대표, 정미진 헬셀 대표이사, 장문기 엑스캡터 대표이사 등 2개 유통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축구공 전국 시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주시는 28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양근의 캠틱종합기술원장, 장성기 신드론 대표이사, 박선기 우리항공 대표이사, 최범수 GBF 대표이사, 방순원 기원전자 대표이사 등 5개 제조사 대표, 정미진 헬셀 대표이사, 장문기 엑스캡터 대표이사 등 2개 유통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축구공 전국 시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5개 제조사는 신성장동력인 탄소와 드론을 융복합해 개발한 드론축구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드론축구공의 공동 생산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기원전자는 LED조명과 센스, 모터 등 전자부품 생산을 담당하고, GBF(지비피)는 드론축구공의 외골격 제작을 담당하게 된다. 또, 우리항공이 비행 제어기술을, CK솔루션이 축구공의 드론축구공의 구조·형상, 몰드 제작을, 신드론이 축구공의 최종 조립을 각각 맡게 된다. 이처럼 5개 기업의 기술이 결합해 생산한 드론축구공은 유통회사인 오

제 활성화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주에서 생산된 드론축구공을 매월 200개 이상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드론축구공이 판매되면, 드론축구의 저변이 넓어지고 이를 통해 드론축구 시범경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전주가 드론레저스포츠산업도시로 주목을 받고, 드론축구공 구입문의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드론축구 보급과 지역경

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최첨단 탄소소재와 드론기술을 융·복합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공 보급되면 전주는 세계적인 드론레저스포츠도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드론축구를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널리 확산시켜, 전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레저스포츠 산업 시장이 형성되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대 자공심이 될 교호·응원가 공모

"개교 70년, 전북대의 자공심이 될 교호와 응원가를 공모합니다." 우리 대학이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아 대학 위상과 구성원의 자공심을 드높이기 위해 총 상금 880만원 규모의 교호(구호)와 응원가 공모전을 시행한다.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호(구호) 공모'는 우리 대학에 대한 자부심과 애교심이 담겨있고 쉽고 박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40자 내외의 구호를 제작하면 된다. 상금은 응원가 대상에 300만원, 제작한 구호는 육성으로 직접 녹음해 2건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27일부터 30일까지 별도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응원가 공모'는 전북대를 응원하는 호소력과 세련미, 박력 등을 갖춘 가사와 멜로디로 구성된 1분30초 내외의 순수 창작곡을 제작하면 된다. 제작된 음원은 mp3 등 오디오 파일과 가사가 포함된 악보를 첨부해 내달 10일부터 17일까지 (<http://www.jnu.ac.kr/70th/event/song>)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대 홈페이지 (<http://www.jnu.ac.kr>) 일반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선작은 5월 10일 발표된다. 상금은 응원가 대상에 300만원, 최우수상 2편에 각 100만원, 우수상 4편에 각 50만원이 주어진다. 교호(구호)는 대상에 100만원, 최우수상 2편에 각 30만원, 우수상 2편에 각 10만원이 주어진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 농업인대학 '발효식품' 과정 개강

전주시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주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전문농업인력 육성에 나섰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28일 전주 지역 농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농업인대학 '발효식품반' 개강식을 가졌다. '발효식품반'은 최근 건강 먹거리로 관심이 높아진 전통장류와 주류, 천연발효식초, 절임류 등의 발효식품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생산하고 지역 농가에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선발된 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7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이론과 실습을 병행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참가자들이 발효식품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실습을 통해 농산물 가공 창업·경영이 가능한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산물 가공 창업 및 상품화를 통해 새로운 소득 및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김민근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돌아다녀주세요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리밭' 역할을 재확인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